

# 이젠 반체제도 찬체제도 있을 수 없다

## 「뉴욕」 동포 초청 리셉션 연설

1981년 1월 31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포 여러분!

수만리 이역 이곳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하니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신임대통령 「레이건」 씨와 만나 한·미 양국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 문제, 양국의 경제협력문제 등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하여 미국에 왔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조국의 발전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사시는 10만동포 여러분과 그리고 유학생 여러분이 각 부문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또한 우수성을 발휘함으로써 겨레의 자질과 저력을 세계에 과시하고 있음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산 설고 물 선 이곳에서 오늘의 발전을 이룩하기까지는 뼈를 스미는 외로움과 형용 못할 온갖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고국의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여러분들에게 별다른 도움을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자존심과 독립심을 끈기있게 발휘하여 오늘의 빛나는 결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살아가는 이 미국과 국제 무대에서 5천만동포를 표상하는 민족사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쌓은 경험과 학문은 우리 겨레의 경륜과 슬기를 높여 주는 데 지해나 공헌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은 바로 겨레 전체가 잘 되는 것이고 고국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국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제5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척하는 새 시대는 명실상부한 민주복지국가의 구현을 통해 통일대업을 실현함으로써 자주민족국가로서의 광망을 드높게, 그리고 영원무궁토록 비치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민족의 총참여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본부가 있는 이곳은 세계 온 민족의 시선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의 범민족적 참여야말로 더욱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국에 관한 좋지못한 소식이 전해져서 여러분을 우울하게 하고 조국애를 발휘하려는 여러분의 사기를 저상케 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 것으로 나는 짐작합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이 허약해지고 멸망해도 크게 슬플 것이 없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잘못되거나 과장되는 수가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생각하셔야 하겠

입니다.

물론 아직도 조국이 몇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음을 나는 솔직히 인정하고자 합니다.

자원부족국가로서의 겪는 고충이 적지 않은 데다가, 작년 5월까지의 정치혼란, 사회혼란이 경제에 끼친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쾌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시대의 극한대결과 국가혼란에 책임을 지고 무대의 전면에서 물러난 인사들은 대부분 근신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국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층이 아직 일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은 역사의 진군이나 국민적 의지의 강도로 보아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약간의 어려움은 다 갖고 있는 법입니다. 그것은 세계의 부국인 미국도 그리고 미국최대의 도시인 이곳 「뉴욕」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자학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다면, 오히려 그 어려움은 국민적 결의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조국의 흥을 위해 우리 모두 손을 잡읍시다. 잘났든 못났든 조국은 우리가 일생토록 의지해야 할 육신과 마음의 고향입니다. 오늘 조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고 묻지 말고, 우리에게 무한한 행복과 영광을 줄 수 있는 내일의 찬란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내외동포 모두의 힘을 한데 모읍시다.

제5공화국의 정식출범을 위한 대통령선거를 2월에 실시하고 3월중에 대통령취임식을 한 뒤 한두 달 내에 국회의원 선거를 모두 마쳐 명실공히 제5공화국을 금년 상반기중에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서도 몇몇 사람이 본인의 방미를 반대하는 데모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에 대해 욕을 하면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여 모국방문을 중지시키는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해왔는데, 내가 돌아가면 일체 문제삼지 않고 해외동포는 누구를 막론하고 조국방문의 권리를 부여할 생각입니다. 과거 욕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정부가 이들을 동포가 아닌 것으로 과격하게 취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다짐할 것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나는 전쟁을 막기 위해 김일성을 만나자고 제의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내가 평양에 갈 용의도 있으며, 김일성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 어느 곳이라도 방문할 수 있도록 제의했었습니다. 해방 이후 6·25를 겪은 36년 동안에 우리 동포가 1백 30만명이나 희생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일제하 36년 동안 이민족치하에서 희생당한 사람의 수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믿지 못하니까 쌀을 갖다 밥을 해먹자 해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 속에서 상호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총책임자끼리 얘기하며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보자는 것입니다.

1·12 제의에 대해 북한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김일성이 직접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정식답변으로 생각지 않고 계속해서 이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나는 반체제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반체제든 찬체제든 모두 우리 국민입니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천 8백만 국민을 책임지도록 하느님께서 나에게 중책을 부여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